

## 일본 자판기 시장, 지금 무슨 일이???

### 마츠시타 전기, 종래 소비 전력 36% 삭감한 음료 자동 판매기를 발매

마츠시타 전기산업은 업계 첫 히트 펌프 방식을 채용해 냉각 사이클의 효율화를 도모한 것으로 소비 전력량이 종래기종에 비해 64%로 저소비 전력 타입의 음료 캔보틀 자동 판매기를 3월 중순부터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동판매기에서는 가온 방식으로 히트 펌프를 채용했고, 배열 회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을 통해 종래 히터 방식에 비해 2.3배의 가열 효율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냉각 방식은 직렬 변환 냉각 사이클을 채용해 냉각 효율을 13% 향상시켰다. 아울러 진공 단열재 사용 영역을 확대해 에너지 로스의 경감도 도모했다. 이들 성능의 채택으로 연간 소비 전력량은 950 KWh가 되었다고 한다.

또 냉매에는 ISO 부탄을 이용해 단열재도 완전 논후론화하고 있다. 납프리는 다로, 육가 클롬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환경 배려형의 제품이다. 월 500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

마츠시타 전기산업의 Web 사이트 <http://panasonic.c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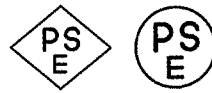
### 음료 대기업 논후론 자판기를 증설 환경 대응

청량 음료 메이커 각사는 대체 프레온을 사용하지 않는 자동판매기의 도입을 본격화한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고려, 환경에 좋은점을 적극 강조하며 상점주나 공공 시설 등에 설치를 진행시킨다. 비용은 종래 타입에 비해 3~5배로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도입은 자판기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 설계로 운전 코스트를 억제하는 등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설치를 재촉하고 있다.

삿포로 음료는 금년 8억엔 전후를 투자해 2000대의 에너지 절약 타입의 논후론형 자판기를 도입한다. 자판기의 종류를 7기종으로 늘려,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설치하기 쉽게 했다. 이 회사는 2008년까지 신규에 도입하는 자판기를 모두 논후론형으로 전환해 2018년까지 보유하는 5만대의 변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 전기용품 안전법에 의해 「PSE」마크 없으면 자동 판매기 판매 금지



올 4월 1일부터 일본에서는 「전기용품 안전법」에 의해 자동판매기 중 「PSE」마크가 없

는 것은,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진열이 금지된다.

이 「PSE」의 P는 Product, S는 Safety, E는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의 약어이다. 「PSE」를 직역하면 「전기 기구와 재료·제품 안전」이다.

헤세이 13년에 지금까지의 「전기 용품 단속법」에 대신해 「전기 용품 안전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해진 표시로 450품목의 전기용품이 일정기간(5년, 7년 또는 10년) 후에는 이 PSE 마크 표시가 없으면 판매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많은 전기 용품이 올 4월 1일에 일정기간(5년)이 만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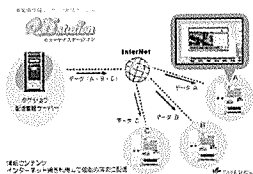
자동판매기는 10년 전의 제품에 비해 소비 전력량이 반감하는 등 업계 노력에 의해 각별한 진화를 이루고 있다. 새롭게 설치되는 자판기는 신형이 바람직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병음료 자판기 등은 리사이클 솥에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병음료의 부흥 입장으로서는 판매 금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4월 1일부터 마크가 없는 제품(간단하게 말하면 5년 이상전의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자판기 외 「전기 난로, 전기 스토브, 전기 토스터, 전기 전기밥통, 전기다리미, 주서, 믹서, 전기 탁상시계, 전기 패중



시계, 전기 세탁기, 전자 악기, 전자 시계, 전자 냉장고, 전자 악기, 라디오 수신기, 테이프레코더, 레코드 플레이어, 텔레비전 수신기, 전자 렌지' 등이다. 이에 따라 올 4월 1일 이후는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제품이 쓸데없게 대량으로 폐기되게 된다.

### 타케쇼우, 액정 모니터를 탑재한 자판기에의 콘텐츠 전달하는 「QKstation」를 시작



타케쇼우는 3월 20일부터 액정 모니터를 탑재한 청량 음료 자동판매기에 콘텐츠를 전달하는 「QKstation」(큐케이스테이션) 서비스를 개시

한다. 액정 모니터부착 자동판매기 「프리 모바일」에 타케쇼우측의 관리 서버보다 동영상·정지화면·플레이시·텔롭·음성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형식에 대응한 콘텐츠 전달을 실시하는 것이다.

「프리 모바일」은 자동판매기에 ADSL나 FTTH 등의 브로드밴드 회선을 끌어들이 주위의 공중 무선 LAN 접속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자동판매기 오픈레이터에 의한 온라인으로의 재고관리나 매상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IRI 커뮤니케이션과 호-킹, 타케쇼우의 3사는 「프리 모바일」의 공동 사업을 2004년 5월에 시작했다. 공공 시설, 역, 민간 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자동판매기를 새로운 정보 표시 매체로서 정보 서비스 발신 기지로 하는 서비스사업에 임해 왔다.

타케쇼우는 아이치·기후·미에·시즈오카의 4현을 대상으로 「프리 모바일」의 설치 실적이 있어 이번 서비스는 이 「프리 모바일」에 탑재한 대형 액정 패널에 영상·음성 등의 데이터를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 전달한다.

### 「어드밴스가사폰」으로 게임 정보 프로그램 「텐게키게임체널」이 무료 전달



키 게임 CH」가 무료로 전달  
am3는 닌텐도의 휴대 게임이용 영상 소프트웨어

서비스 「어드밴스 DS무비」대응 콘텐츠 자동판매기 「어드밴스가사폰」으로 무료 게임 정보 프로그램 「텐게키게임체널(CH)」의 전달을 시작한다.

「텐게키게임체널」은 am3와 닌텐도 하드의 게임 정보지 「텐게키닌텐드 DS」(소사간)과의 공동 기획했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닌텐도의 게임 정보를 전하는 「마리오 박스」, 「포켓몬」에 관한 뉴스를 취급하는 「포켓몬 클럽」, 편집부 추천 타이틀을 소개하는 「쥘드로키스타 지암」이라는 3종류의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 TV의 정보 프로그램과 같은 분위기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하비 등의 최신 정보가 전달된다.

프로그램을 입수하려면 대응 게임기(GBA, GBASP, 게임보이 마이크로, DS, DS Lite)에 가세해 「어드밴스 어댑터」와 「어드밴스 카드」가 필요하다. 「어드밴스가사폰」의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자신의 「어드밴스 카드」로 「텐게키게임체널」을 쓸 수 있다. 덧붙여 전달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매월 25일에 갱신될 예정이다.(일부 점포에서는 갱신일이 다르다.)

### 코카·콜라 보틀캔」을 마셔

#### 「삼국지 대전」의 캐릭터 상품을 갖트 하자!

세가와 코카·콜라 보틀러즈는 전국의 세가·어뮤즈먼트 시설 130 점포에서 3월 23일부터 「마셔 주자 '삼국지 대전' 프리미엄 상품 선물 캠페인」을 실시한다.



▲ 이 포스터가 캠페인 실시 점포의 표적. 「삼국지 대전」을 플레이 할 때, 원하는 캐릭터를 고른다



▲ 프리미엄 상품은 스텐레스제의 휴대 액세서리로 전부 12종류. 팬은 원하는 캐릭터 구입하고 싶어 한다

이 캠페인은 점포내에 설치되어 있는 코카·콜라 제품의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행해지는 것으로, 기간중은 대상 상품 「코카·콜라 300 ml보틀캔」에 빠짐없이 「삼국지 대전, 프리미엄 상품」이 부속된다. 「프리미엄 상품」은, 「삼국지 대전」의 인기 무장 12명이 각각 1명씩 디자인 된 휴대 액세서리가 들어 있다. 어느 캐릭터의 상품을 받을 수 있을까는 구입할 때까지의 즐거움이므로 「삼국지 대전」의 팬은, 「삼국지 대전」을 플레이 할 때에 꼭 「코카·콜라(300 ml보틀캔)」를 구입해 컴플리트를 목표로 하고 싶어 한다. 캠페인은 상품이 없어지는 대로 종료가 된다.

또 3월 21일에는 세가 본사에서 「삼국지 대전」처음이 되는 전국 결승 대회 「폐업에의 길 ~웅비의 각~」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대회장에서는 본 캠페인이 먼저 실시된다고 한다.

### 모금 자판기

자동판매기를 「모금상자」로서 활용해 공동 모금의 주변을 확대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자 미야기현내에서 계획되고 있다.

복지 관계자나 음료 판매업자에 의해 조직 된 NPO 「하트풀 벤더」가 활동 모체가 되는 것으로 자판기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거스름돈의 일부가 모금으로서 스탁

되는 구조로 모금액은 이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 대상 자판기에는 붉은 날개를 다룬 공동 모금회의 마크나 취지를 표시한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자판기에 의한 모금의 대처는 판매자가 매상의 일부를 모금한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NPO의 대처는 명확하게 이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모금을 실시한다고 하는 점이 이채롭다.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의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모금을 해주면 상당액이 모금될 가능성이 있다.

최초부터 판매액수를 내려 예를 들면 120엔의 상품을 110엔으로 해 나머지 10엔을 기부하는지, 환불받을 지를 이용하는 결정하게 된다.

### 오뎅 통조림 자판기 인기 상승



▲ 곤약이나 생선살 꼬치구이 등의 도구가 들어간 오뎅의 통조림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오뎅 통조림이 주목을 끌고 있다. 업무용이 주력인 텐구간즈메(나고야시)가 제조해 도쿄 아키하바라의 명물로서 널리 알려지

게 되어, 전국으로 까지 파급되고 있다. 나고야 오스 자판기의 2월 판매량은 작년 12월의 4배로 증가하고 있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뎅캔은 317 ml 들이로 가격은 종류에 따라 200엔~250엔이다. 맛은 메추라기알, 곤약, 사츠마 올려 생선살 꼬치구이, 다시마가 공통의 재료로 조리되어 있어, 자판기로도 얼마든지 맛있는 오뎅을 맛볼 수 있다.

나고야에서는 오스의 제일 사탕 옆 빌딩에 2대 설치되어 있는데 2월 매상은 약 990캔이다. 사탕옆 빌딩 관계자는 「토일요일에도 매상도 뛰어나다. 판매호조의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라며, 「이번 달 말에는 제2사탕 옆 빌딩에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 술·담배 1대 이역 자판기

주류 자판기 최대기업의 후지타카(교토부 나가오카교시 코우타리)에서는 주류와 담배를 1대로 판매해, 연령 확인 장치나 방법 카메라를 탑재한 고성능 복합형 자판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초로 발매되는 술·담배 1대 이역 자판기는 현행 주류자판기와 같이 면허증의 생년월일을 읽어 내는 장치를 탑재했고 카메라 부착 인터폰도 설치되었다. 연 6000대의 판매를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 공항에 휠체어 이용의 자판기 설치



일본 트랜스 오션 항공(JTA)에서는 지난 3월 24일, 휠체어 이용자용의 자동판매기를 돌담 공항 출발 로비에 도입했다.

도입된 자동 판매기는 최상부의 상품을 휠체어에 앉은 채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버튼을 아래쪽으로

로 개량하고 있다. 또한 요금을 입금시키는 장소나 상품의 취출구도 개량되어 있다.

동사 돌담 공항 업무과의 스나가와 코지 츠카사 과장은 「고령자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비행기를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고, 친밀한 자동 판매기의 도입을 기업에 부탁했다」라고 밝혔다.

### 황새 기금 지원의 자판기 설치...효고·토요오카

킨키 코카·콜라보트링(수도마사카즈 사장)은, 황새 기금에 매상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자동판매기를 효고현 토요카시내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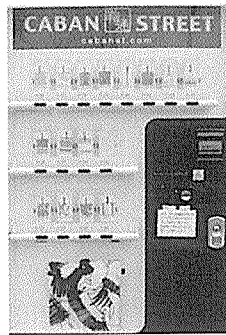
▲황새 지원을 위한 자판기 1호기의 이미지도

에 15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1호기는 동시의 태양광 패널 메이커가 제작한 태양광 발전 패널을 붙인다. 정면 등에 황새의 비행하는 사진에 야생 복귀 계획에 대한 설명문도 더한다.

이 프로젝트 관계자는「황새의 야생 복귀가 끝날 때까지 설치해, 지원을 계속한다」라고 말했다.

### 가방 자동판매기가 국도변에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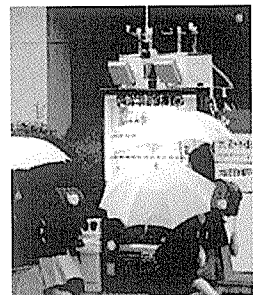
전국 우수한 가방의 산지, 효고현 토요카시의 국도 426호변에 지난 3월 가방자동판매기가 등장했다. 지역 진흥을 도모하는 현지 상가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담배가게의 청량 음료수의 자판기라고 잘못 볼 수 있을 것 같은 외관이다. 1500엔을

입금시키면 포제 가방(약 25센치 사방)이 들어간 플라스틱 용기가 나온다. 시내의 업자가 제작해 황새 등을 다룬 디자인은 점주 등이 생각했다.「자판기로 밖에 살 수 없는 가방」을 팔아, 「브랜드화하고 싶다」라는 게 사업의 목적이다.

### 통학로의 아동, 지켜보는 자판기 로봇 오사카에서 시동

방법 카메라나 센서를 붙인 자동판매기로 등학교 중의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길거리 주시 로봇」의 실증 실험이 지난 2월 20일 오사카시의 변화가 미나미에 있는 시립중학교양초등학교의 통학로에서 실시되었다.



▲ 실증 실험이 시작된 통학로의 아동 지켜보는 자동판매기 상의 「길거리 주시 로봇」=20일 오전, 오사카시 줘오구

가방에 명함 사이즈의 IC태그를 붙인 아동 약 100명이 통과하는 것을 통학로에 설치된 자판기 10대가 캐치해 보호자 등의 휴대전화와 PC에 아동의 위치 정보나 카메라 화상을 송신했다. 오오타 후사에 오사카부 지사가 자판기전에 휴대식의 「긴급 버튼」을 누르면, 사이렌음이 울려 자판기 상부의 적색등이 점등되었다. 곧 센터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자원봉사가 달려와 무사를 확인했다.

시가현 나가하마시에서 유치원 아동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이기도 해, 오오타 지사는 「아이의 안전은 보호자나 유치원만으로는 지키지 못하고, 이중 삼중의 강력한 체제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사카부는 3월 20일까지 시험 운용해, 약 3년 안에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 방법 버저 자판기, NGO 지부가 오이타시 하기와라에 설치



◀자동판매기에 부착된 방법 버저의 버튼을 누르는 도쿄 대학분소의 아동(오이타시 하기와라)

오이타시 하기와라의 야노 설계 사무소(야노 히사시 회장)의 부지 내에 지난 3월 8일, 버튼을 누르면 적색등이 점멸해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의 버저 자동판매기가 등장했다.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조직(NGO) 「PFI 차판카인드네스링크」(도쿄)이 설치를 진행하고 있어, 동 조직의 상당히 지부(후

지사와3혜지부장)에서 첫 설치가 이루어졌다. 근처에 있는 도쿄대학분소의 아동이나 보호자 등 약 50명이 모여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신기한 듯이 바라봤고, 시험삼아 버튼을 눌러 보는 아동도 있었다. 후지사와 지부장이 아동들에게 「곤란했을 때나, 상처를 입

었을 때, 어른이 오면 좋을 때에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장난으로 누르거나 하지 말아 줘」라고 말했다. 후지사와 지부장의 제안을 받아 지역 방법을 위해서 설치를 결정했다. 「어디에라도 있는 자동판매기이기 때문에 어느 가두 범죄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이 더 많이 퍼져만 갈 수 있다면 말이다」라고 야노씨는 말했다. 5학년 삼박소야군(11)은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한다. 곤란했을 경우는 버튼을 누른다」라고 말했다.

소리의 크기는 70db. 떠들썩한 오피스내 정도의 소리가 45초간 울렸다가 자동적으로 멈춘다. 작은 아이라도 누를 수 있도록, 버튼의 위치는 지상으로부터 70~80cm의 높이로 설정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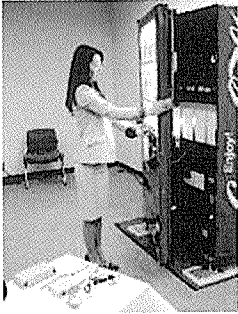
「음료 메이커와의 협력으로 설치료는 들지 않는다.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면 곧바로 설치할 수 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 때문에, 오이타현 전역으로 설치를 진행시켜 나가고 싶다」라고 후지사와 지부장은 이야기하고 있다.

### 재해 대응형 자판기 협정 체결 박차

와카야마현 싱구우시와 미카사 코카·콜라보트링 주식회사가 지난 2월16일 재해시에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재해 대응형 자동 판매기」를 시청에 설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자동판매기는 비상용 전원을 내장하고 있어 정전 후 48시간 이내에 연속 500개 이상의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다. 와카야마현내에서는 와카야마시에 이어 2개소가 설치가 된다고 한다. 또한 아이치현 신시로시와 코카·콜라 선투럴 재팬 주식회사가 지난 2월20일, 재해시 대응형 자판기로 재해시에 문자 정보 제공이나 음료수 무료 제공을 실시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설치되는 재해 대응형 자동판매기는 기능을 버전업한 것으로 재해시에 정전이 되어도 강화한 솔러 전지로 자판기의 메세지 보드로 재해 정보를 흘릴 수 있는



것 외에 무선에 의한 원격 조정으로 무료로 음료수 제공이 가능하다. 작년 중 재해 대응형 자동판매기는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말에는 6, 7대가 시내에서 가동할 예정이라 한다. 전국의 자치체에서 잇달아 재해

대응형 자판기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품 개량도 진행이 되고 있다. 종래의 코카콜라가 개발한 전광게시판 부착 재해 대응형 자동 판매기는 재해시에 정전하거나 LAN시스템 장애가 일어나면 자판기 자체 작동하지 않고, 음료를 꺼낼 수 없는 등의 결점이 있었다. 이번 카야마현 싱구우시의 예에서는 비상용 전원 장치 탑재를 통해, 신시로시의 예에서는 솔러 전지 탑재를 통해 이 약점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솔러 전지를 탑재한 신시로시의 자판기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실효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자판기 메이커가 이같은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재해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재해 대응형 자판기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 토쿠시마시 음료수 메이커와 첫 구원 물자 협정 체결

토쿠시마시는 지난 3월 27일 남해 지진 등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필요한 음료의 확보를 위해, 음료수 메이커 5사와 구원 물자 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시에 의하면 재해시의 생활 필수 물자로 무상 제공을 받는 협정을 민간기업과 묶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코쿠 코카·콜라보트링(타카마츠시) 오오츠카 베버리지, 키린 비버릿지(이상 도쿄) 토쿠시마 펍시콜라 판매(토쿠시마시) 다이토 도링코(오사카시)의 5사이다. 시보유 시설에 「재해 대응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 재해 발생시에 무료로 청량 음료

수를 제공받는다.

#### 코베시, 다이토 도링코와 재해시 무상 음료 제공받는 협정체결

코베시는 지난 3월 10일, 재해시에 음료의 무상 제공을 받는 협정을 다이토 도링코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지진이나 풍수해로 피난소를 개설하는 경우, 시내에 있는 다이드의 물류 거점으로부터 차나 물을 공동으로 배송하는 것 외에 일부 자동판매기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이토 도링코가 같은 협정을 자치체와 체결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다이토 도링코는 시내 2개소에 물류 거점을 가져, 물이나 커피 음료 등 약 26만 4000개의 음료를 재고로서 보유하고 있다. 재해시에는 시와 협력해 이 음료를 학교 등에 마련하는 피난소에 보낸다. 스윗치를 바꾸면 무료로 음료를 꺼낼 수 있게 되는 재해 대응형 자동 판매기도 3월 하순까지 시내 4개소에 설치한다.

킨키 코카·콜라보트링도 코베시와 재해시의 음료 제공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중일본 고속, 재해시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자동판매기 설치

중일본 고속도로는 지난 3월 22일 도메이 고속도로의 고텐바 인터체인지에 있는 고속버스정류장에 「재해 대응형 자동판매기」를 설치했다.

재해 대응형 자동 판매기는, 전파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중의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재해시 음료수가 부족했을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 외에 상부에 설치된 전광 게시판으로 교통정보나 재해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 자치체 등에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덧붙여 고속도로에의 설치는 전국 최후이다.

무료로 제공한 상품의 대금은 중일본 고속도로와 코카·콜라 센츄럴 재팬이 부담한다.